

News

'고금리 고통' 서민 변동금리 주담대,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추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책 중 하나"... 금리 급등으로 높은 이자에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이중고 우려 때문... 2019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유사 가능성도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와 미팅 즐기는 카뱅... 실명계좌 발급 임박했나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계약 맺을 것이라는 관측 확산... 사실상 실사 준하는 수순이라는 관계자들 전언 잇따라...

최근까지 빙्ष,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이 카카오뱅크와 디파이 관련 협력 방안 등 스터디 진행... 시장점유율 끌어올린 것 같은 유사 효과 있을 것이라는 전망

금융권, 희망퇴직 러시에도 인건비 감소 효과 미비...왜?

시사저널이코노미

금융권, 대규모 희망퇴직 러시에도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비... KB금융, 올 1분기 직원 급여로 1조 891억원 지출... 신한, 8,648억원 지출 등...

대상 연령이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 다만 수요에 따른 전문직군 수시채용과 호봉제 등 임금인상이 작용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아...

횡령금으로 투자한 318억 날렸다 우리은행, 1분기 손실 떠안는다

머니S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횡령금의 절반가량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돼... 해당 횡령금을 올 1분기 회계상 손실로 반영해 다음주 공시 예정

영업의 손실로 처리될 경우 순이익도 감소 전망... 다음 분기에 환입 처리해 분기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어... 다만 그럼에도 은행권 3위 자리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출범...지지부진하던 배달라이더·펫보험 활성화되나

한국금융신문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배달 라이더 보험, 펫보험 활성화 이루어질지 관심 집중... 그간 가입율이 저조했으나 새정부 정책 추진으로 탄력받을 수도 있어...

이륜차 시간제 보험 활성화되면 현행 204만원인 보험료가 99만원까지 내려가는 효과 얻을 수 있어... 펫보험 활성화도 기대되는 중... 연금 등 현안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

신한라이프 이어... NH농협생명, 오는 7월 '헬스케어 시대' 연다

머니S

NH농협생명, 오는 7월 헬스케어 플랫폼 출시... 미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에 문제 생기면 사후관리 지원한다는 계획

보험 판매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는 구상

국내장 수익감소 대안찾는 증권사...美주식 차별화 경쟁 돌입

CEO스코어데일리

국내장을 떠난 투자자들의 관심은 해외주식으로 옮겨져... 외화증권예탁결제보관금액, 지난 5일 기준 115조 9,023억원 기록... 전년 대비 90.41% 수준

증권사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개선방안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 실시간 거래, 옵션 거래, 주간거래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 "우리 상품은 증권 아니다... 계속 영업"

동아일보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 자사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영업이어가... 당국 가이드라인 발표로 불확실성 해소됐으며 반기는 중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등은 증권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 다만 금융당국이 향후 감독 과정에서 업체 판단 뒤집을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 주의 필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